

군민 자긍심 향토문화유산 발굴 착수

가족 판타지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

무주군, 지역 내 소재 비지정 문화재로 보존·관리 가치 있는 유무형 기념물 등 문화유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11~12일 백희나 작가 원작 뮤지컬화 공연

무주군이 잠재된 향토문화유산 발굴에 착수했다. 각 마을에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해 군민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전승시키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 의병장 장지현장군 묘역.

무주군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대한 신청서를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접수 받는다.

지정 대상은 국가·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무주군 지역 내 소재한 비지정 문화재로 보존·보호·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이다.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군에서는 향토문화유산으로써의 가치를 살리고 보수 등 체계적 관리와 가치발견, 군민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다. 또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 문화유산은 향후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신청서와 구비된 자료들을 토대로 역사적 가치와 보존상태 등을 검토해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한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1차 신청서 서류심사 및 서면 심의 후 2차 무주군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을 결정한다.

최종 심의결과를 토대로 30일간 지정 예고를 한 뒤 향토문화유산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또는 단체는 무주군 문화예술과 또는 읍·면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군은 지금까지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신청·접수해 옥영재(무풍, 현종 15년(1849) 홍양 이씨 문중에서 자녀들을 인재로 길러내기 위하여 건립한 교육기관)를 비롯해 류경제 효자각(무주읍 당산리, 고종 24년(1887년) 조 정에서 정려하고 동몽교관으로 증직함), 삼공리 월음령계곡(설천면, 제철유적) 등 모두 12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한 바 있다. 무주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임정희 팀장은 "문화유산은 군민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존적 가치가 있다"며 "무주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역사문화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백희나 작가의 원작을 뮤지컬화 한 '장수탕 선녀님'을 올해 첫 가족 뮤지컬 기획공연으로 무대에 올린다고 전했다. 오는 11~12일 모악당에서 만날 수 있는 '장수탕 선녀님'은 엄마를 따라 오래된 동네 목욕탕 장수탕에 간 덕지가 냉탕에서 만난 이상한 할머니 선녀님과 한바탕 신나게 놀며 교감하는 이야기다.



이에 따르면 '장수탕 선녀님'은 6살 덕지와 아주 옛날 옛적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날개옷을 잃어버려 되돌아가지 못한 선녀 할머니가 우연히 목욕탕에서 서로 만나 펼쳐지는 판타지 뮤지컬로, 아릴 적 목욕탕에 대한 추억과 '선녀와 나뭇꾼' 이야기가 어우러진 새로운 동화 한 편을 보는 듯하다.

이번 뮤지컬에서는 부모 세대에게는 친근하고 자녀 세대에게는 다소 생소한 공간인 원작 그림책의 '오래된 목욕탕'이 무대 위에 그대로 구현된다. 덕지가 장수탕 문을 여는 순간부터 펼쳐지는 탈의실, 냉탕, 열탕, 때밀이 침대 등 실제 목욕탕을 옮겨 놓은 듯한 무대 세트가 시선을 끈다.

덕지가 선녀 할머니와 만나면서 벌어지는 신나는 냉탕 놀이와 신비한 모험은 영상, 조명, 특수 효과에 힘입어 관객들을 신기로운 환상의 세계로 이끌고, 아름다운 음악은 원작이 가진 따뜻한 감동을 배가시킬 것이다.

또한 동화 속에 나오는 선녀처럼 젊고 어여쁜 선녀가 아니라 수백 년을 산 듯한 할머니가 탄금없이 선녀로 등장하고, 더욱이 선녀 할머니가 동화책 '선녀와 나뭇꾼'에 나오는 바로 그 선녀라는 설정은 웃음을 자아낸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70-8000)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공예 트렌드 매거진 '손으로 공예로' 제작 용역 업체 모집

전주공예품전시관, 17~21일 방문 제출

식으로 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한다. 제작 규모는 권당 20면, 매 회당 3,000부 발행을 기준으로 한다.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소식지 내 콘텐츠 기획안을 마련해 제안하면 된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은 2023년 공예 전문 소식지인 '손으로 공예로' 제작 용역 업체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손으로 공예로'는 우리 지역의 공예소식과 공예문화정보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연 4회 발행하는 전통문화 계간지다.

이에 따르면 2022년까지 10호 발행을 통해 공예인, 공예 기술, 공예상품, 공예 최신 트렌드, 해외공예 마을 소개 등 공예문화의 다채로운 면면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롭게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손으로 공예로' 소식지 제작과 발행을 위해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

오는 17~21일까지 전주공예품전시관(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15) 사무실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김도영 원장은 "공예 트렌드 매거진 '손으로 공예로' 발행은 단순한 소식 전달을 넘어 우리 지역의 우수한 공예문화를 기록하고 발전해가는 발자취를 남기는 일"이라며 "공예문화를 꽃피우는 일에 함께할 역량 있는 업체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jonjucraft.or.kr) 또는 공예문화산업팀(063-281-1613)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한·중 민간고문서와 일상생활 이야기의 재발견'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이야기연구소·명지대 귀주문서연구회, 오늘 공동 학술대회 개최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이야기연구소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인문대 1호관 201호에서 명지대 귀주문서연구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연구재단과 전북대학교의 후원을 받아 대면과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중 민간고문서와 일상생활 이야기의 재발견'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국화중양연구원 박성호 교수와 오래된미래연구소 김영준 연구원이 한국 민간고문서와 호남지역 민간 고문서의 현황과 파제를 짚어보는 주제발표에 나선다.

특히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김도형 교수가 한국 민간고문서와 일상생활 이야기를 주제

로 고문서 스토리텔링의 현황과 사례 등 흥미진진한 연구 성과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민간고문서의 의미와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한국고전번역원 안광호 연구원이 명대(明代) 이후의 민간고문서를 중심으로 한 중국 민간고문서의 의미와 지역적 분포 분석 연구를 선보이고, 중국 안휘대(安徽大) 휘학 연구중심(徽學研究中心) 왕호 교수는 중국 휘주문서(徽州文書)의 역사와 연구 경향 분석에 대해 발표한다.

또 박찬근 연세대 교수와 남민구 동국대 교수는 각각 중국 귀주(貴州) 지역의 '청수강문서(�淸水江文書)'를 활용한 소수민족 사회경제 연구의 현황과 중국 사천(四川) 지

역 민간 문서 현황에 대한 발제를 통해 중국 민간고문서의 지역적 특성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주제발표 후에는 김홍길 강릉원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명경일(국사편찬위원회), 조미은(한국학중앙연구원), 유정열(서울대), 정철용(명지대), 홍성구(경북대), 이승수(復旦大), 함승연(연세대) 교수가 종합토론에 나선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한·중 양국 기층 사회에 존재했던 민중의 일상생활 모습을 비교하면서 양국 사회가 가졌던 기본적인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